

釜山地域의 朝鮮時代 木造建築 研究

조 원 영

(합천박물관 학예연구사)

차 례

I. 머리말

II. 부산지역 사찰건축의 형식

1. 범어사

2. 장안사

III. 부산지역 관아 및 향교건축의 형식

1. 관아건축

2. 향교건축

IV. 부산지역 목조건축의 특징과 의의

V. 맺음말

I.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부산지역에 남아 있는 조선시대 목조건축물의 형식 및 양식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부산지역 목조건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재 남아 있는 부산의 목조건축물은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조선 후기에 중건되었거나 크게 수리되었다. 따라서 현존 자료로는 조선시대 건축양식 전반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다만 사찰건축이나 향교건축과 같은 종교와 관련된 건축물들이 남아 있고, 조선시대 지방 행정을 담당하던 관아건축이 남아 있어 다양한 건축 형식을 엿볼 수 있는 점이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크게 사찰건축, 관아 및 향교건축으로 나누어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형식적 특징을 파악하고, 부산지역 목조건축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찰건축은 조선 후기의 건축 특징을 지니고 있는 범어사와 장안사의 건축물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범어사 대웅전의 경우에는 다포식 건물이면서 맞배지붕을 올린 불전건물인데, 일반적으로 대웅전과 같은 사찰의 중심건물은 팔작지붕을 얹는 경우가 많은 사례를 본다면 다소 예외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영남지역의 불전 가운데에는 다포식 건물이면서도 맞배지붕을 올린 건물이 꽤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17·8세기 영남지역에 건립된 불전 가운데 맞배지붕 주불전은 하나의 양식으로 자리 잡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 건축물과 범어사 대웅전 가구 구조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당시 이 지역 건축물들의

양식적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 다른 부속전각들의 경우에도 조선 후기 건축물의 일반적인 공포구성과 비교해봄으로써 부산지역 사찰건축이 갖는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관아건축은 현재 동래에 남아 있는 동래부 동헌과 망미루, 독진대 아문, 장관청, 군관청 등 동래부 관아건물과 다대포 첨절제사영의 객사건물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비록 원래의 위치에서 이진된 건물도 있으나 당시의 지방 관아건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건물들이다.

향교는 선현의 봉사와 유교 교육을 담당하였던 기관이므로 궁궐이나 주택, 사찰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독자적인 건축 형식을 갖추고 있다. 현존하는 유구가 조선시대에 건축된 것으로 시대별 변천과정을 정확히 고증할 수는 없으나 타 건축과 비교해 볼 때 전국적으로 많은 비교자료가 있으며 본래의 기능이 대부분 현재까지 지속되고 이에 따라 건축 형태의 변화가 격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통건축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향교건축은 동래향교와 기장향교의 배치 형식을 중심으로 각각의 건물에 대한 형식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부산지역의 조선시대 건축에 대한 연구는 부진한 형편이다. 개별 건축물에 대한 조사 연구는 진행되었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산지역 건축물이 갖는 특징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본고는 부산지역 조선시대 건축에 대해 영남지역의 다른 건축물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부산지역 건축물이 갖는 건축사적 의의를 구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전통목조건축 연구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II. 부산지역 사찰건축의 형식

조선 왕조는 성리학을 국시로 채택하여 사찰에 가서 재를 올리는 백성들의 습속을 바꾸어 유교에 따라 제례를 올리도록 가묘(家廟)를 장려하였다. 이러한 시책에 힘입어 유림들에 의해 절이 탈취되거나 파괴되고 각종 석재나 탐채가 향교의 건축 재료가 되기도 하였다.

비록 이처럼 불교가 배척 받았지만 사찰들은 명맥을 유지하였다. 역대 왕조실록에 거론된 사명(寺名)만도 400개소에 달한다. 임진왜란으로 사찰은 대부분 파괴되거나 소실되었으나 전란 후 약간의 절이 새롭게 개창되기도 하고 중창 불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현존하는 불교건축 유구의 대부분은 조선 후기인 17세기 이후의 것들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는 불교 쇠퇴기가 아니라 오히려 또 한번의 중흥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¹⁾

사찰은 조선시대 건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의 상량문이나 묵서명(墨書銘) 등을 보면 종사하는 장인들 중에 상당수가 승려였음을 알 수 있다. 전란에 피해를 입은 사찰의 복구공사는 승려들을 유능한 기술자로 훈련시켰으며, 이렇게 익힌 기술은 다시 외부의 건축공사에도 동원되어 승려들에 의해 불사(佛事)의 자본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승려들의 기술과 투자는 조선 후기 이래 사찰이 존속하는 기초가 되었다.

현존 전통사찰 대부분은 주불전 1동과 몇몇 승방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사찰들이며, 불전건물들은 거의 대부분 조선 후기에 중건 또는

1)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건축사연구 1』, 도서출판 발언, 2003, p.79

창건된 것들이다. 따라서 현존 유구를 대상으로 한다면 임진왜란 이후인 17·8세기에 활발하게 전개된 불전건물의 형식과 내부공간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1. 범어사(梵魚寺)

1) 대웅전



범어사대웅전

보물 제434호로 지정된 이 건물은 범어사의 주불전(主佛殿)으로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는데 1602년(선조 35)에 다시 지었으나 곧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1613년(광해군 5)에 중창하였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목조기와집이다.

기단(基壇)은 면석과 갑석을 갖추었고 양측면과 후면에서는 장대석 외벌대 기단으로 마감하였는데, 기단의 동쪽 끝에 있는 면석에 ‘강희 19년’이라는 명문기록이 있어 1680년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단 중앙에는 석계를 놓고 좌우에는 소맷돌을 놓았는데 연화문이 조각되어 있고, 기단의 각 면석에는 4엽의 모란문이 양각되어 있다.

초석은 자연석 초석으로 기둥뿌리를 원형으로 다듬어 기둥을 세웠는데, 전면 귀기둥의 초석 위에는 다시 둥근 돌기둥 모양의 장초석(長礎石)을 세워 짧은 두리기둥을 받쳤다.



범어사대웅전 기둥

건물 전면에는 창호를 달았는데 중앙 어칸은 4분합 빗살문을 달고, 좌우 협칸에는 3분합 빗살문을 달았다. 좌우 측면에는 외여닫이문을 달고 뒷면 각 칸에는 두짝의 격자살문을 달아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둥은 민흘림의 원주(圓柱)인데, 기둥머리는 창방(昌枋)으로 결구되어 있으며 그 위에 다시 평방(平枋)을 놓고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놓은 다포식(多包式) 구조를 이루고 있다.



범어사대웅전 공포

공포는 어칸에 3구의 주간포를, 좌·우 협칸에는 2구씩의 주간포를 배치하였으며 공포 사이의 간격은 거의 같다. 공포는 앞뒷면에만 짜고 측면에는 주두(柱頭) 아래 창방뿔목을 첨차로 만들어서 장혀와 도리의 뿔목을 받쳤다. 공포의 구조는 외 3출목, 내 4출목으로 제공의 살미는 끝이 직절(直切)

된 양서로 되어 있는데 다만 제4제공은 끝이 날카로운 양서로 표현하였으며, 그 위에 보머리를 둥글게 파련 초각해서 장혀와 결구하여 외목 도리를 받게 하였다. 내부 살미는 끝이 모두 교두형(翹頭形)으로 표현되어 있다. 주두와 소로는 경사지게 절단하고 행공첨차는 아무런 치장이나 초각이 없이 직절하여 배 모서리만 약간 공글린 교두형으로 만들었다.

가구(架構)는 전면의 평주(平柱)와 내진(內陣)에 세운 2개의 고주(高柱)에 대들보를 걸고, 그 위에 동자주(童子柱)를 세워 중중보를 걸고 다시 그 위에 동자주를 세워 중보를 건 3중량(三重樑) 구조이다. 양측벽의 내목도리와 중도리 하부에는 2중 장혀를 사용하였으며, 중보 밑에는 우물천장을 가설하고 양 측면 고주와 앞뒤 공포 끝부터 빗천장을 가설하였다.



범어사대웅전 단집

처마는 서까래와 부연(浮椽)이 있는 겹처마이며 양측 박공면에는 방풍판(防風板)을 달았다.

건물 내부에는 2개의 내진고주와 대들보 사이에 보개천장을 배치하고 그 아래에 불단을 마련하였는데, 아자형 평면에 다포식 공포를 갖춘 보개는 운룡, 서조, 비천상 등을 조각하여 장식하였으며, 불단에는 다양한 화문과 비천상을

화려하게 조각 장식하였다. 범어사 대웅전과 비교할 만한 맞배지붕의 영남지역 주불전으로는 경주의 기림사 대적광전, 경북 청도의 대비사 대웅전, 대적사 극락전, 경남 창원 성주사 대웅전, 진해 성홍사 대웅전, 통영 용화사 보광전, 고성 운흥사 대웅전, 김해 은하사 대웅전 등이 있다.

2) 범어사의 부속전각

(1) 관음전(觀音殿)



범어사관음전

관음전은 1613년(광해군 5) 대웅전과 함께 중창되었으며 1721년(경종 1) 홍보 스님이 다시 중건하였다. 그러나 익공의 형식을 보면 장식이 많은 조선 후기 양식이므로 1721년 중건 후 다시 대폭 수리하여 원래의 모습을 잃은 듯하다. 잘 다듬은 장대석으로 만든 기단 위에 둥글게 깎은 주초를 놓고 기

둥을 세웠다. 건물의 평면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에 전면은 벽체

없이 빗살문을 달았는데 각 칸마다 모두 같은 규모의 3분합문이다. 양 측면에는 각각 외쪽의 빗살문을 달았으며, 후면은 벽체로 처리하였다.

공포는 출목이 있는 익공으로²⁾ 연꽃이 새겨진 파련초각을 하여 주두와 짧게 내어진 행공첨차를 받치고 있다. 행공첨차 위에는 소로를 놓아 통



범어사관음전 공포

장혀를 받쳤으며 장혀는 보머리와 결구하여 외목도리를 받치고 있다.

지붕은 부연과 서까래가 놓인 겹처마의 맞배지붕이며 양 측면에는 방풍판을 달았다. 건물 내부에는 보아지로 대들보를 받치고 있으며, 대들보 위에는 동자대공 위에 중도리를 얹고 다시 그 위에 포대공을 놓아 종보를 받쳤다. 천장은 종보에서 우물반자를 놓고 외곽에는 빗천장으로 처리하였으며 건물 중앙칸 천장은 다시 층급천장으로 한 층 높게 올려 연꽃문양으로 장식하였다. 중앙어칸의 후면 벽에 붙여 관음보살상과 후불화를 모셨다.

(2) 일로향각(一爐香閣)

현존 건물이 언제 건립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체적인 건축수법으로 보아서 조선 후기 이후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전봉희, 「조선시대 목조건축 공포형식의 변천에 관한 연구 -같은 三包系를 중심으로-」, 『한국건축사론』, 지문당, 1990, p.263에서는 '같은 삼포계열은 기본적 공포의 구성에서는 헛첨차를 가진 주심포계 공포형식과 같으나 제공의 형태가 익공과 유사하고 또한 헛첨차의 초제공첨차가 한 몸으로 짜여져 헛첨차가 기둥머리와 주두까지를 감싸며 외부로는 1출목 소로와 행공첨차를 갖고 내부는 간략한 보아지로 처리한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 공포의 명칭에 대해서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주삼포작, 같은 삼포, 출목익공, 특수형 익공계, 절충식 익공계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것은 대체로 출목을 가진 익공형식을 뜻하므로 명칭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루고 '출목이 있는 익공'이라 칭하기로 한다.



범어사일로향각

막돌허튼층쌓기한 기단 위에는 다듬은 장대석으로 마감하고 등글게 깎은 초석을 놓은 후 기둥을 세웠다. 건물의 평면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규모로 건물 전면에 뿔마루를 내고 각 칸마다 세 짝 미세기문을 달았다.

기둥 위에는 공포 없이 주두를 놓아 주심도리와 직교한 보머리를 받쳤으며, 주심도리 아래 장혀와 창방 사이에는 각 칸마다 4개의 소로를 배치하였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이 건물은 원래 관음전 자리에 있던 금어선원(金魚禪院)에 딸린 염화실(拈花室)이었다고 하는데 노전승(爐殿僧)이 거처하는 건물 답게 너록색과 석간주색을 이용한 가칠단청에 흰 선과 검은 선의 굵기 단청만으로 간단하게 마감한 단정한 모습을 보여 준다.

(3) 팔상·독성·나한전(捌相·獨聖·羅漢殿)



범어사팔상독성나한전

이 건물은 한 채에 건물에 세 전각을 배치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원래는 1613년(광해군 5)에 묘전 스님이 나한전을 창건하고 1705년(숙종 31)에 명학스님이 팔상전을 중건했다고 하므로 세 건물은 각각 따로 조성되었을

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05년에 학임 스님이 '팔상나한독성각(捌相羅漢獨聖閣)'을 중건하고 제성상(諸聖像)을 새롭게 조성하

였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이 건물의 조성시기는 그다지 오래되지 않을 것이다.

건물의 기단은 잘 다듬은 네모난 판석 위에 다듬은 장대석으로 마감하고 장대석으로 만든 계단을 세 곳의 전각 앞에 각각 설치하였다. 원형으로 다듬은 초석 위에 기둥을 세워 주두를 받치고 있다.

건물의 평면은 정면 7칸, 측면 3칸인데, 좌측 3칸은 팔상전, 중앙의 네 번째 칸은 독성전, 우측 3칸은 나한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팔상전은 3칸 가운데 중앙칸에 3분합문을 달고 좌·우칸에는 2분합문을 달았다. 우측에 있는 나한전도 팔상전과 동일하게 건물 전면에 빗살문을 설치하였다. 중앙의 독성전은 아치형의 상인방(上引枋)을 세우고 약간의 간격을 준 뒤 2분합 꽃살문을 설치하였다.

이 건물의 공포는 출목이 있는 익공식으로 행공첨차 위에 소로를 놓아 통장혀를 받치고, 장혀는 봉황머리를 초각한 보머리와 결구하여 외목도리를 받쳤다. 팔상전과 나한전의 두공첨차 사이에는 꽃병에서 피어오르는 연꽃과 연꽃가지를 초각하여 그 위에 소로를 세 개씩 올려 놓았으며, 독성전의 두공첨차 사이에는 양 측면에 각각 살창을 하나씩 내고 그 중앙에 용머리를 초각하여 세 개의 소로를 받치고 있다. 독성전을 구성하는 건축 부재의 화려하고 공예적인 조각수법이 단연 눈에 띈다.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범어사 독성전

팔상전에는 석가모니삼존상과 팔상탱화를 봉안하였고, 독성전에는

나반존자(那畔尊者)를, 나한전에는 석가모니삼존상과 16나한상을 각각 봉안하였다.

(4) 미륵전(彌勒殿)



범어사 미륵전

『범어사창건사적』에 의하면 범어사 창사 당시에는 주불전이 2층 건물의 미륵전이었다고 하였는데, 그 뒤의 내력은 자세히 알 수 없다. 1613년(광해군 5)에 묘전 스님이 지금의 자리에 미륵전을 중창한 이래 1637년(인조 15)에 인흡 스님이 중건하고 1889년(고종 26)에 의룡 스님이 중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원래는 정면 3칸, 측면 2칸에 겹처마 맞배지붕을 올리고 막돌허튼 층쌓기한 기단에 자연석 초석을 놓았으나, 최근 수리하면서 다듬은 면석과 탕주를 세우고 장대석을 둘러 가구식기단을 짜고, 고북형 초석 위에 원주를 세웠다.

공포는 출목이 있는 익공식으로, 초익공 뿌리를 위로 치켜 올려 그 끝에 연꽃을 조각하고, 2계공 뿌리 위에는 연꽃봉오리를 조각하였으며 뇌록색을 이용하여 파련 형상의 단청을 하였다. 행공침차 위에는 소로를 놓아 통장혀를 받치고, 장혀는 파련 조각의 보머리와 결구하여 외목도리를 받쳤다. 두공침차와 행공침차 사이의 공간은 순각판으로 마감하였다.

건물 내부에는 대들보 위로 긴 판재를 중첩하고 금단청과 비천그림으로 천장을 마감하였는데, 건물의 오른쪽에 마련된 주존불인 미륵불상의 위에는 한 단 높게 우물천장을 만들고 측면으로는 빗천장으로 마감하였다. 건물 전면에는 각 칸마다 2분합의 빗살문을 달았다.

(5) 비로전(毘盧殿)



범어사 비로전

비로전은 범어사 창사 당시에 미륵전 서쪽에 세 칸 건물로 건립되었다고 한다. 그 뒤의 내력은 알 수 없고 1683년(숙종 9)에 중창하고, 1721년(경종 1)에 중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건축 양식으로 보아 이 건물은 조선 후기 이후의 건물로 추정된다.

건물의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로 기단부는 최근의 수리로 가구식기단으로 바뀌었으며, 자연석 초석을 놓았는데 일부는 초두부를 둥글게 깎아 기둥 놓을 자리를 마련한 것도 있다. 기둥은 모두 둥근 기둥이며, 공포는 출목이 있는 익공식으로 역시 행공침차 위에 소로를 놓아 보머리와 결구된 장혀를 받치고 있다. 두공침차와 행공침차 사이에는 순각판을 달아서 마감하였다. 지붕은 서까래와 부연이 있는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6) 보제루(普濟樓)



범어사 보제루

『범어사사적기(梵魚寺事蹟記)』에 의하면 이 건물은 1699년(숙종 15)에 자수 스님의 주관하에 조현, 회영 스님이 편수가 되어 창건했다고 한다. 그 뒤 1813년(순조 13)에 신정 스님이 주관하고 만잠, 관식 스님과 민간공장(民間工匠)인 김성대가 도목수가 되어 중수하였으며, 1827

년에도 또 한 차례 중건하였다. 그러나 지금 건물은 크게 수리하면서 원래의 모습을 잃었다.

이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기와집으로 수리전에는 중정 쪽을 개방하고 불이문 쪽으로는 판벽 사이로 쌍여닫이의 판장문을 달았다. 그런데 최근에 수리하면서 큰 자연석 주초 위에 1.5m 석주를 받치고 그 높이만큼 벽체를 석판(石板)으로 막아서 중정 쪽에만 네 짝 미세기 창을 달았다.

공포는 출목이 있는 익공식으로 주두 위로 초익공과 이익공을 겹쳐 놓고 행공첨차를 짧게 내어 외목도리를 받쳤다. 두공과 두공 사이에는 복화반(覆花盤)을 1구씩 창방 위에 올려 지붕 상부의 하중을 나누어 받치고 있으며 그 좌우에는 부처와 보살을 벽화로 그렸다.

(7) 불이문(不二門)

이 문은 1699년(숙종 25)에 천왕문과 함께 창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그 뒤의 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천왕문과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중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건물의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에 겹처마의 맞배지붕을 올렸다. 낮은 기단 위에 원통형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워서 앞뒤의 각 주간에 문틀을 짜서 쌍여닫이의 판장문을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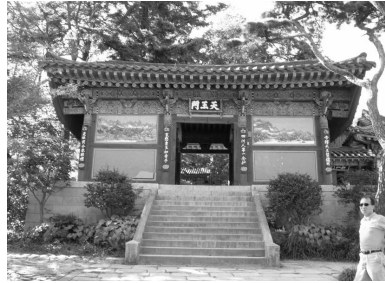
범어사 불이문

공포는 외 2출목, 내 2출목의 주심포식으로 주두 아래 헛첨차를 내고 쇠서의 끝에는 활짝 핀 연꽃

과 연꽃 봉오리를 조각하였으며, 창방 위에는 벽체 없이 파련문양의 화반을 만들어 주심도리 아래 걸쳐진 장혀를 받고 있다. 공포의 조각이 지나치게 장식적으로 바뀐 조선 후기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건물이다.

(8) 천왕문(天王門)

이 문은 1699년(숙종 25)에 처음 건립되었으며, 그 뒤로 여러 차례 중수되었을 것이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평면에 중앙 어칸은 통로로 사용하고, 좌우 협칸에는 사천왕상 4구를 모셨다. 자연석 초석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공포를 짜서 겹처마의 맞배지붕을 얹었다.



범어사 천왕문

공포는 출목이 있는 익공형식으로 행공점차 위에 소로를 놓아 장혀를 받치고, 장혀는 보머리와 결구하여 외목도리를 받쳤다. 내진평주로 대들보의 중앙을 받쳤으며 대들보 위에는 동자주를 세워 종보를 걸치고 그 위에 파련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하였다.

천장은 서까래가 드러나는 연등천장으로 조성하였다.

(9) 일주문(一柱門)



범어사 일주문

2006년 2월 7일 보물 제1461호로 지정된 범어사 일주문은 1613년(광해군 5) 묘전 스님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뒤 1718년(숙종 44) 석주(石柱)로 개조하였으며, 1781년(정조 5) 다시 중건했다고 한다. 지금의 건물은 그 때 건립한 것이지만 짧은 목재 원기둥을

받치고 있는 석주는 1718년에 세운 그대로이다. 이 석주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장초석으로 볼 수 있다.

장초석은 지상에서 1.45m 정도 높이로 세운 배흘림을 가진 원통형 석주인데 4개가 동일한 간격으로 일렬로 서 있다. 초석 위에는 기둥을 세워 겹처마의 맞배지붕을 받쳤으며 지붕 양 측면에는 방풍판을 달았다.

공포는 외3출목, 내 3출목의 다포식으로 창방과 평방으로 받쳤는데 주간포작 사이에는 1구씩의 보간포작을 배치하였다. 초제공, 2제공의 쇄서는 뿌리 밑부분을 둥글게 하여



범어사일주문 기둥

턱을 치켜 들게 만들었고, 3제공은 쇄서의 형상은 같지만 뿌리 밑부분을 파형으로 조각하였다. 한대는 익공 형식으로 길게 앞으로 돌출되어 보머리를 받치고 있으며, 보머리는 장혀와 결구되어 외목도리를 받고 있다. 행공첨차는 교두형이며 창방의 아래에는 계자각으로 기둥과 장초석 상부를 감싸고 있다.

2. 장안사(長安寺)

1) 대웅전

장안사는 673년(문무왕 13)에 원효대사가 척반암과 함께 창건하여 처음에는 쌍계사라 하였는데, 809년(애장왕 10) 장안사로 고쳤다. 임진왜란 때 병화로 모두 소실된 것을 1631년(인조 8)에 월대사가 중창하였고, 다시 1638년(인조 16) 태의 스님이 중건하였으며, 1654년(효종 5) 원정, 학룡, 충묵 등이 대웅전을 중건하였다. 1941년에 각현스



장안사 대웅전

님이 중수하였고, 1987년에 종각을 새로이 세우고 요사를 중창하고 단장하였다.

부산시 기념물 제37호인 장안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장방형 평면을 하고 중앙 어칸에는 4분합문, 좌우 협칸에는 3분합문을 달았으며, 양 측면에도 각각 한쪽의 띠살문을 달았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으로 다포식 건물이다.

막돌허튼층쌓기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기둥을 올렸다. 창방과 평방 위에 공포를 놓았는데, 주두와 소로는 평굽이며 두공은 교두형이고 행공첨차의 밑부분은 쌍5자형 조각을 하였다. 첨차의 양 끝에는 상부의 부재를 받기 위한 소로가 놓였는데, 주두와 같은 모양의 평굽이다. 출목은 외 2출목, 내 2출목이며 쇠서는 3단으로 날카롭게 표현하였고, 외목도리를 받치는 장혀의 형태는 통장혀이다. 정면과 후면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1개씩의 주간포를 설치하였고, 측면에는 주간포가 없다. 창방뿔목이 헛첨차의 형태로 평방뿔목을 받치고 평주의 평방 아래에는 창방과 직교하여 헛첨차를 설치하였다. 출목과 출목 사이에는 순각판으로 마감하였고, 보뿔목은 초각형인데 귀기둥 위에는 봉황을 새기고 측면기둥 위에도 봉황을 새겼다.



장안사대웅전 공포

건물 내부 천장은 중앙에 우물천장을 가설하고, 모서리쪽에는 빗

천장으로 마감하였다. 층랑을 대들보 위에 걸쳤고, 대들보 위에서 중보를 받치는 대공의 형태는 파련대공이다.

2) 응진전(應眞殿)



장안사 응진전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장방형 평면에 중앙 어간에는 띠살 4분합문, 좌우 협간에는 띠살 2분합문을 달고 좌우 측면에는 문 없이 벽체로 처리하였다. 겹처마 맞배지붕의 출목이 있는 익공식 건물이다. 전면 기둥과 기둥 사이

에는 창방 위에 연꽃무늬의 화반을 배치하였다. 창방의 단면폭은 첨차폭과 동일하며 출목수는 외 1출목이고, 내부에는 보아지로 처리하여 주두를 감싸면서 보를 받치고 있다. 익공의 모양은 양서초식형이며 두공첨차와 행공첨차 사이의 공간은 순각판으로 마감하였다.

주두와 소로는 모두 평굽이며, 행공첨차의 밑부분은 쌍S자형 조각을 하였고 두공은 교두형이다. 도리를 받치는 장혀는 통장혀를 사용하였다. 보뿔목의 형태를 보면 귀기둥에는 봉황을 새기고 평주에는 용을 새겼다(그림 33). 천장 형태는 우물천장이다. 좌우 측면의 고주는 방형의 목재를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장안사 응진전 공포

3) 명부전(冥府殿)



장안사명부전

이 건물 역시 정면 3칸, 측면 2칸의 장방형 평면을 이루고 있다. 응진전과 마찬가지로 중앙 어칸에는 띠살 4분합문을 달아 출입구로 삼고, 좌우 협칸에는 띠살 2분합문을 달았으며 좌우 측면에는 문 없이 벽체로 처리하였다. 겹처마 맞배지붕의 출목 없는 2익공식 건물이다.

전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창방 위에 연꽃무늬의 화반을 놓았고 그 위에 소로를 갖추어 상부부재를 받쳤다. 창방 단면폭은 첨차폭과 동일하며, 주두와 소로의 형태는 평굽이고 두공의 형태는 교두형이다. 익공의 모양은 앙서초식형으로 쇠서 위에 연꽃을 새겼다. 내부에는 주두를 감싼 보아지가 대들보를 받치고 있다. 익공 위 보뿔목에는 봉황을 새겼다. 건물 내부 천장은 모서리쪽에는 빗천장으로, 중앙에는 우물천장으로 처리하였으며 2개의 대공으로 종량과 중도리를 받쳤다.

Ⅲ. 부산지역 관아 및 향교건축의 형식

1. 관아건축

조선시대 수도에는 도성이 있고, 각 고을에는 주위를 둘러싼 읍성

이 있으며 도성이나 읍성 안에는 관원들이 나라일을 다스리는 관서, 즉 관아건물(官衙建物)이 있었는데, 관아란 관원들이 정무를 보는 건축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서(公署), 공아(公衙), 관부(官府), 관청(官廳), 관서(官署)라고도 한다. 또 국가적인 공무를 집행하는 건물을 지칭하는 말로서 공해(公廨)라 쓰기도 한다.³⁾ 따라서 관아건축은 넓은 의미로 중앙과 지방에서 백성을 다스리고 공무를 집행하는 데 사용한 건물들이라 할 수 있다.⁴⁾

조선시대에는 시기에 따라 다소 변화는 있었으나 대체로 조선 영조대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를 기준으로 할 때 전국에 334개의 읍이 있었다. 이들은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 등으로 구분된 관찰사 밑에 있는 행정단위의 하나였다. 이들 각 행정단위마다 중앙에서 수령이 파견되어 정무를 보던 청사를 일반적으로 동헌(東軒)이라 한다. 따라서 동헌이라 하면 넓은 의미에서는 객사(客舍)를 포함한 관아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객사가 전패(殿牌)와 궐패(闕牌)를 모셔 놓고 초하루 보름마다 향궐망배(向闕望拜)하던 곳임을 생각할 때 객사는 임금이 계신 곳으로 상징됨으로써 수령만의 집무처인 정청건물(政廳建物) 및 각 관청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⁵⁾

1) 동래부 동헌(東萊府 東軒)

동래부 관아건물 배치는 관아 상호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기능별로 관아가 집단화되어 있었으며, 그것은 동래부읍성의 당시 가로망을 중심으로 경계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남북 도로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각각 이청(吏廳)과 무청(武廳)이 자리하였으

3)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사』, 기문당, 1996, p.474

4)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 문예출판사, 1992, p.349

5) 주남철, 『관아건축에 관한 연구』, 『건축』 28권 116호, 1984, p.30



동래부동헌

동서 도로의 북쪽에 객사와 창고들이 위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동래부지도(1872)』의 관아 배치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지도에서 읍성의 남문에서부터 북쪽으로 대로가 나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대로가 끝나는 지점에 객사가 보인다. 객사의 우측에는 동

헌이라 써어진 건물이 있고 부근에 많은 건물들이 묘사되어 있다.⁶⁾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동래부의 동헌은 원래의 자리에 남아 있는데, 동래부 관계 기록에 따라 관사의 규모를 살펴보면 동헌이 10칸이고 그 부속건물로 동익랑과 서익랑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동래부는 정3품 당상관이 부사로 임명되던 곳이며 국방상, 대일외교상 중요시되었던 곳이므로 관아시설도 다른 고을에 비하여 규모가 컸다. 이 동헌은 동래부 관아건물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건물로서 1636년(인조 14) 동래부사 정양필(鄭良弼)이 창건하여 1711년(숙종 37) 부사 이정신(李正臣)이 충신당이란 편액을 붙인 뒤로 충신당이라 일컬어졌는데 조선시대 말까지 동래부사는 이곳에서 집무를 했다.⁷⁾

문헌을 통하여 동헌 주변의 건물 배치를 살펴 보면 동헌인 충신당(忠信堂)을 중심으로 서쪽에 독경당(篤敬堂), 찬주헌(贊壽軒), 완대헌(緩帶軒), 서북쪽에 봉래관(蓬萊館), 동쪽에는 연심당(燕深堂), 회식당(晦食堂)과 부속건물인 동익랑, 서익랑 등이 있었으며, 충신당의 남

6) 김순일, 조형래, 『조선시대 동래부의 관아건축에 관한 연구』, 향도부산 13, 1996, p.199

7) 『東萊府誌』 官舍條, 1740 ‘忠信堂十間卽衙軒也崇禎丙子府使鄭良弼建在緩帶軒之東肅宗辛巳府使李正臣扁以忠信堂’

쪽에는 공수청(公須聽), 외대문(外大門)이 자리잡고 있었고, 그 외에도 성내외에 많은 건물이 있었다.⁸⁾ 그러나 일제침략기에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 또는 파괴되었으며, 이 관아의 부속문이었던 독진대아문(獨鎭大衙門)과 망미루(望美樓)는 온천장 금강공원내에 이견되었다. 현재는 충신당만 본래의 위치에 보존되어 있으나, 부지는 축소되고 원래 떨어져 있었던 건물인 동익랑이 충신당에 가깝게 이견되어 있다.

현재 건물의 구조를 살펴 보면 건물의 평면은 정면 7칸, 측면 4칸의 규모에 겹처마 팔작지붕의 익공식 건물이다. 다듬은 돌로 조성한 기단 위에 가공한 초석을 놓고 원주를 세웠다. 공포는 초익공식으로 쇠서의 모양은 수서형이며 주두 아래에서 초각한 퇴보뿔목을 받치고 있다.

건물 내부에는 전후로 내진고주를 세워 대들보를 받치고 한 단 아래 퇴보를 내었으며, 측면의 중앙 기둥 위에는 충량을 걸쳤다. 대들보 위에는 중중보와 종보를 차례대로 놓고 그 위에 화반대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쳤다. 천장은 서까래가 다 드러나는 연등천장이며 건물 전면은 중앙 여칸과 그 좌우 2칸씩은



동래부동헌 내부

4짝 띠살문을 달고 양 옆의 퇴칸에는 2짝 띠살문을 달았다.

충신당 옆의 동익랑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평면에 홀처마 팔작지붕 건물로 전면은 각 칸마다 4짝 띠살문을 설치하였으며 측면은 벽체로 이루어져 있다.

충신당은 일제시대에 동래군청 청사로 사용되었고, 광복 후에도

8) 『東萊府誌』 官舍條, 1740 참조

동래군청 청사로 사용되다가 1973년 동래군이 양산군에 편입되자 양산군 보건소 동부지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978년에 초석 이상을 해체하여 복원보수를 하여 옛모습으로 중수하였는데, 서쪽벽은 원래의 것이며 문설주, 중방 등이 아직 남아 있다. 기단도 정면과 서측면



동래부동헌 동익랑

만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고, 전면에 놓여 있는 디딤돌과 계단은 과거 이 건물의 바닥이 마루였음을 알려준다. 부산지방에 남아 있는 조선시대의 단일건물 중 가장 규모가 큰 유일한 동헌이며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관아 건축양식을 갖추고 있다.⁹⁾

현존하는 건물은 아니지만 동래부의 객사는 본 건물이 39칸 규모로 봉래관이라 불렸으며, 가운데 정청을 중심으로 양쪽에 익랑을 가지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객사건축의 형태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의 관아건축 중 객사는 특히 위계가 높은 건물이므로 독립된 일곽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동래부의 경우도 객사 본관인 봉래관은 대문과 협문 그리고 행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객사 일곽의 건물 칸수를 모두 더하면 총규모는 76칸이며 동래부의 관아 중 최대 규모의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2) 망미루(望美樓)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4호인 이 누각은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관아

9) 부산시, 『부산의 문화재』, 1993, p.120

10) 김순일, 조형래, 앞의 논문, 『항도부산』 13, 1996, p.193



망미루

대문이다. 1742년(영조 18)에 동래부사 김석일(金錫一)이 동래부 동헌 앞에 세운 문루(門樓)인데, 일제시대 시가지 정리계획에 따라 현재 위치인 금강공원 입구로 옮겨졌다. 건물의 전면에는 '동래도호부(東萊都護府)'라고 쓰여져 있는 큰 편액이 있고, 후면에는 '망미루(望美樓)'

라는 큰 편액이 있다.

1895년(고종 32) 동래도호부가 동래관찰사영(東萊觀察使營)으로 승격됨에 따라 일명 포정사(布政司)라고 불리었으며, 이 누각 위에는 4대문의 개폐와 정오를 알리는 큰 북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건물의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로 높직한 장초석 위에 올린 2층 누각이다. 계자각 난간을 가설하였고, 기둥 위 공포는 이익공으로 초익공의 쇠서는 양서형이고 이익공의 쇠서는 수서형인데 보머리를 받치고 있다.

누각 내부에는 보아지로 주두를 감싸면서 대들보를 받쳤다. 대들보 위에는 종보를 올려 종도리를 받친 무고주 5량구조이며 대들보와 측면 기둥 사이에는 충량을 걸쳤다. 마루는 귀틀마루이며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1970년 해체 복원하였으며 1989년에 다시 한번 개수하였다.

3) 독진대아문(獨鎭大衙門)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된 이 건물은 전형적인 관아의 대문으로 1626년(인조 4)에 동래부사 정양필이 동래부 동헌 앞에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1700년(숙종 26) 동래부사 김덕기(金德基)에 의해



독진대아문

중수되었고,¹¹⁾ 1870년(고종 7)에 동래부사 정현덕(鄭顯德)에 의하여 중건되었다.¹²⁾ 이 문은 망미루 뒤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을 일제 때 망미루와 함께 현재의 금강공원으로 옮겼는데, 1971년 부산시에 의해 해체 복원되었다.

이 대문에는 1655년(효종 6)에 동래부의 군사권이 경상좌병영(慶尙左兵營)의 지휘 아래에 있던 경주진관(慶州鎭管)에서 독립하여 단독의 진(鎭)이 되었음을 알리는 ‘동래독진대아문(東萊獨鎭大衙門)’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 또 그 아래의 양쪽 기둥에도 현판이 걸려 있는데 왼쪽에는 ‘진변병마절제영(鎭邊兵馬節制營)’, 오른쪽에는 ‘교린연향선위사(交隣宴餉宣慰使)’라고 되어 있다. 즉 동래부가 변방을 진압하는 병마절제사의 영이라는 것과 대일외교에 있어서 일본의 사신을 접대하는 관청이라는 점을 알려 주는 것이다.

건물의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에 중앙칸이 좌우의 협칸보다 높게 세워진 소슬지붕이며, 처마는 부연이 없는 홑처마이다. 천장 구조는 연등천장이며 중앙칸 천장 아래 홍살이 설치되어 있어 동래부 관아의 외삼문임을 알 수 있다.

4) 장관청(將官廳)

조선 후기 동래부 관아에 딸린 건물의 하나로 이곳 군장관(軍將

11) 『東萊府誌』 官舍條, 1740

12) 『東萊郡誌』 上, 1937, 高宗庚午府使鄭顯德廣築城壁門樓今因道路開通爲平地東北只有殘跡



동래부장관청

官)들의 집무소이다. 부사의 경찰, 군사적인 속료에 군교(軍校)가 있었다. 군교라 함은 장관(將官), 군관(軍官), 포교(捕校)를 말하는 것인데, 특히 장관에는 천총(天總), 파총(把總), 초관(哨官), 기관(旗官), 지관(知官), 기패관(旗牌官)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근교(近校) 밑에

는 사령문졸, 조예, 일수, 나장, 군뢰 등 여러 종류의 요속이 딸려 있었다.¹³⁾

이 건물은 1669년(현종 10) 동래부사 정석(鄭晳)이 창건하였다. 1675년(숙종 1) 부사 어진익이 중건하였으며, 1680년(숙종 6) 부사 조세환(趙世煥)이 중건하여 사용하였는데, 1706년(숙종 32)에 부사 황일하(黃一夏)가 지금의 자리로 이 건하였다. 원래는 이곳에 향청(鄉廳)이 있었다고 한다.¹⁴⁾

현재의 건물은 동래 기영회(耆英會)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영당(耆英堂)’이라는 현판이 걸린 건물과 ‘회로당(會老堂)’이라는 현판이 걸린 건물이 ‘ㄱ’자형으로 이어진 외관을 보이고 있다.

건물은 전면에 뒤탈마루를 내었으며, 기영당의 오른쪽 칸은 한 단 높여 마루를 깔고, 회로당의 왼쪽 칸은 역시 한 단 높여 방을 들였다. 기영당은 중앙 어칸의 전면과 오른쪽 측면에 2짝 띠살문을, 왼쪽 협칸에도 2짝 띠살문을 달았다. 회로당은 전면 4칸, 측면 2칸의 평면으로 오른쪽 한 칸은 기영당과 건물을 잇기 위한 부분으로 다른 칸

13) 부산시, 앞의 책, 1993, p.131

14) 『東萊府誌』廳舍條, 1740

將官廳五間行廊十一間大門一間在忠信堂西顯宗己酉府使鄭哲建肅宗乙卯府使魚震翼重創庚申府使趙世煥又重創丙戌府使黃一夏與鄉廳基相換移建

에 비해 폭이 좁다. 중앙 2칸은 3짝 띠살문을 달고, 좌·우의 협칸에는 2짝 띠살문을 달았다.

자연석 초석 위에 원주를 세웠는데, 공포는 간단한 익공으로 주두를 받친 익공식 구조이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창방 위에 소로를 3~4개 놓아서 주심도리를 받치는 장혀를 받고 있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본채에 딸린 행랑채는 정면 7칸, 측면 1칸의 ‘一’형 민도리집이다.

이 건물은 무리한 맞춤과 부재의 부자연스러운 이음 등 잦은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지만 현존하는 조선 후기의 관아건물로 당시의 건축 양식을 다소나마 알 수 있는 자료이다.

5) 군관청(軍官廳)

이 건물은 동래부 관아 건물의 하나로 군관들의 집무소인데, 특히 무청(武廳)으로서 그 희소가치가 크다.



동래부군관청

동래부는 왜와 국경을 접한 국방상의 요충지로서 1655년(효종 6) 동래독진의 설치로 양산군 및 기장현 소속의 군병까지도 통합지휘하게 되었다.¹⁵⁾

이와 같이 이 지방의 군사상 입지가 강화됨에 따라 군병의 수도 늘었을 것이며, 그들의 집무소인

무청도 증가하였을 것이다.

15) 『東萊府誌』 建治沿革條, 1740

孝宗朝乙未設獨鎮肅宗朝庚午兼防禦使旋罷府使祥狀請設立防禦使以梁山機張軍合操壬申春罷防禦使令己未兼守城將戊午因府使具宅奎狀啓己未兼守城將

건물의 창건연대는 알 수 없지만, 1675년(숙종 1)에 부사 어진익(魚震翼)이 중건하고 그 익년에 부사 이복(李馥)이 다시 중창하였으며, 1709년(숙종 35) 부사 권이진(權以鎭)이 또한 중창하였다고 한다.¹⁶⁾ 1982년 해체할 때 나온 상량문에 의하면 1812년(순조 12) 부사 조정철이 다시 증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건물은 1982년 충렬사 경내로 옮겨 세웠다. 현재의 현상을 살펴 보면 막돌바른층쌓기로 세운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다. 건물의 평면은 정면 6칸, 측면 2칸의 규모인데 왼쪽 2칸은 각 칸마다 2짝 띠살문을 단 방으로 꾸몄고, 나머지 4칸은 마루를 깔았다.

공포는 간단한 익공식 구조이며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장관청과 함께 조선 후기의 관아건물로 당시의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6) 다대포객사



다대포객사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이 건물은 조선 후기 다대첨절제사영(多大僉節制使營)의 건물이다.

다대포를 비롯한 남해안은 옛부터 왜구들의 침탈이 심했던 곳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세종 때 3포가 개항되자 그곳의 방어가 중요시되어 부산포, 제포에 첨절제사

16) 『東萊府誌』廳舍條, 1740

外軍官廳十一間行廊八間在忠信堂西不知創於何年肅宗乙卯府使魚震翼重創 翌年丙辰府使李馥又重創己丑府使權以鎭又重創

영을 두고 경상좌도에는 부산포영 아래에 다대포 등 10포에 만호영(萬戶營)을 두었다.¹⁷⁾ 이 때 영(營)은 장림포에 있었다. 이 영이 언제 다대포에 옮겨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¹⁸⁾

명종 이후 수군제(水軍制)의 변경에 따라 진보제(鎭堡制)가 실시되고 부산포와 다대포는 중요시되어 진이 되었으며 종전 경상좌도 대부분의 만호영은 보(堡)가 되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이후 다시 군제가 바뀌어져 다대진은 부산진, 두모진, 개운진, 포이진, 서생진, 서평진과 함께 경상좌도의 7진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다대진은 부산진과 함께 중시되어 다른 진보다 2배의 병선을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대진첨사는 북쪽 국경의 만포진첨사와 같이 정3품 당상관의 높은 벼슬이 주어졌다.

이 건물의 창건연대는 알 수 없지만, 1825년(순조 25)에 중수하였다. 원래 첨사영이 있었던 현 다대초등학교 구내에 있던 것을 1970년 몰운대 현재의 자리에 원형 그대로 이전 복원하였다.



다대포객사 현판

현재 건물의 현상을 살펴 보면 지붕과 기둥, 하방만 남아 있고, 건물의 벽체는 없는 상태이다. 정면 중앙 어칸에 이 건물의 이름인 '회원관(懷遠館)'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정면 5칸, 측면 2칸의 장방형 평면에 홀처마 팔작지붕을 얹었다.

자연석 초석 위에 기둥을 세웠는

17) 『經國大典』 兵典

釜山浦僉節使所管萬戶營 頭毛浦 甘浦 海雲浦 漆浦 包移浦 烏浦 西生浦 多大浦 監浦 丑山浦 多大浦 大猛船一隻 中猛船二隻 小猛船六隻 無軍小猛船二隻

18) 『慶尙道續撰地理誌』 關防條 多大浦在縣南長林浦距官四十七里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二十三 東萊關防條 多大浦官在縣五十四里

데, 익공이 없는 무익공집으로 전면과 측면은 기둥머리 위에 주두를 놓고 주심도리 아래에 놓인 장혀를 받치고 있지만 후면은 기둥머리가 바로 장혀와 결구된 대들보를 받치고 있다.

건물 내부를 보면 전면 중앙 어칸과 협칸에는 내진고주를 세워 전퇴(前退)를 내면서 대들보를 받치고 다시 퇴보를 내어 전면 주심도리를 받고 있다.

조선시대 부산지방의 객사로는 부산진성안에 공진관, 좌수영에는 영파당, 동래부에는 봉래관, 초량왜관에는 대동관 등이 있었으나 모두 없어지고 이 객사만 유일하게 남아 있다.¹⁹⁾

2. 향교건축

향교는 조선시대의 국립 지방교육기관으로 주, 부, 군, 현에 각각 한 개씩 설치하였는데 성현(聖賢)을 제사 지내는 제향(祭享)기능, 유생에게 유학을 교육하는 교학(敎學)기능과 함께 지방의 문화향상 등 사회교화 기능도 갖고 있었다.

향교에는 공자 이하 중국의 저명한 유현과 우리나라 역대의 유현을 모시고 있는 대성전(大聖殿)과 학업을 강의하는 명륜당(明倫堂)을 비롯하여 교생(校生)들이 기거하는 동·서의 양재(兩齋)가 있어 그 건물의 구조는 중앙의 성균관을 축소해 놓은 것 같다.

향교에는 원칙상 양반과 서인의 자제로서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학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양반의 자제들이 입학했다. 정원은 고을의 크기에 따라 달랐는데, 『경국대전』에 의하면, 부(府)와 목(牧)은 90명, 도후부(都護府)는 70명, 군(郡)은 50명, 그리고 현(縣)은 30명이었다. 교관도 고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큰 고을에는 문과 출신인 종6

19)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4권, 1991, p.788

품의 교수(敎授)를, 작은 고을에는 생원진사 출신인 종9품의 훈도(訓導)를 파견했다. 생도들은 교관으로부터 강경(講經)과 제술(製述) 등을 배웠는데, 이때의 교재는 대개 『소학』, 『가례』, 사서오경, 『근사록』, 『심경』 등으로 알려져 있다.²⁰⁾

16세기경부터 향교는 수용인원이나 사생(師生)의 질적인 면에서 점차 부진한 상태를 드러내었다. 특히 교관의 확보가 쉽지 않았는데, 이는 유교적 지식을 갖춘 관리, 예컨대 문과에 급제하거나 생원진사에 합격한 관리들이 교관을 한직으로 간주하여 교관에 임명되어 지방으로 파견되는 것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유교적 지식과 소양이 부족한 무과 출신이나 문음 출신의 관리가 교관으로 파견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자연히 교육수준도 떨어지게 되었다. 게다가 임진, 병자의 양란을 겪은 뒤로는 건물과 인재의 손실, 재정의 궁핍 등으로 더욱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다.²¹⁾ 또한 특히 서원의 성행으로 점차 쇠퇴하다가 1894년(고종 31) 과거제도의 폐지와 함께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고, 문묘(文廟)는 향사(享祀)하는 기능만으로 그 명맥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현재 남한에만 231개소의 향교가 남아 있다.

1) 동래향교(東萊鄉校)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동래향교는 동래부 당시의 부산지방에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다. 1392년(태조 원년)에 교육진흥책에 따라 주, 부, 군, 현에 향교를 설립하게 됨에 따라 동래에도 설립되었지만, 임진왜란으로 동래성이 함락될 때 소실되었고, 난이 끝난

20)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생활사』, 역사비평사, 1996, 346쪽.

21) 한국고문서학회, 앞의 책, 1996, 347~348쪽.

지 14년 되던 1605년(선조 38)에 동래부사 홍준(洪遵)이 중건하였다. 그 후 중성(中城) 부근과 학소대 부근 그리고 인생문(人生門) 부근 등으로 여러 차례 이건 중창되었으며 현 위치에는 1813년(순조 13)에 동래부사 홍수만(洪秀晩)이 이 건한 것이다.

<경국대전>의 규정을 보면 동래향교에는 종6품의 교수 1원(員)이 있고 교생의 정원은 70인으로 되어 있으며, 또 향교의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학전(學田) 7결이 지급되었다. 동래부사는 매월 말에 교생의 독서일과를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후 조선 후기에 변혁이 있었는데 영조 때 편찬된 <속대전>에 교수의 직제가 혁파되어 있고, 교생은 218명에 달하고 있으며, 도유사(都宥司) 1인, 장의(掌議) 1인, 재임(齎任) 2인, 전곡교생(典穀敎生) 1인, 책유사교생(冊宥司敎生) 1인 등의 임원을 두고 있다. 이는 이곳 인구의 증가에 따른 학생의 증가에 따라 기능이 분화된 현상으로 보인다.

이 향교의 대성전에서는 춘, 추 두 번의 제향(祭享)이 거행되었다. 지금도 매년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유림(儒林)들에 의해 석전대제(釋奠大祭)가 봉행되고 있다. 원래 대성전에는 공자만 모시고, 그 이하 중국의 유명한 성현·유학자와 우리나라 유학자의 신위는 대성전 앞의 동무와 서무에 각각 나누어 모시도록 하였는데, 각 지역과 향교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현재 동래향교의 경우 대성전에 모신 위패는 공자를 비롯한 춘추시대 노나라의 안자, 증자, 자사, 맹자와 송나라의 정호, 주희 등 중국 유학자 7분과 신라의 설총을 비롯한 우리나라 유학자 18분을 모시고 있다.²²⁾

22) 일반적으로 향교의 대성전에는 공자를 중심으로 안자, 증자, 자사, 맹자 등의 5성을 배향하고 있으며, 중국의 10철(哲), 송조(宋朝) 6현(賢)의 위패를 모시고, 대성전 앞에 동무와 서무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무와 서무에 국내 18현의 위패를 모신다. 국내 18현과 중국의 10철, 송조 6현은 다음과 같다. 동무 1위는 설총(薛聰), 서무 1위는 최치원(崔致遠), 동무 2위는 안향(安珦), 서무 2위는 정몽주(鄭夢周), 동무 3위는 김굉필(金宏弼), 서무 3위는 정여창(鄭汝昌),



동래향교 반화루

향교 건물의 배치를 보면 입구에 반화루(攀化樓)라는 편액이 걸려 있는 누각이 있는데, 이 누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 건물로서 아래층은 명륜당과 동재, 서재가 있는 전정(前庭)으로 출입할 수 있는 삼문(三門)을 설치하였다. 이층 바닥은 기틀마루를 짜고 난간을 가설하였다. 기둥 위의 공포는 출목이 있는 익공식으로 초익공은 쇠서의 끝을 깎았고 이익공은 쇠서 끝을 길게 뽑은 형태로 봉황문양을 조각한 보머리를 받쳤다. 두공과 두공 사이에는 창방 위에 꽃병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연꽃가지를 조각하여 그 위에 소로를 세 개씩 올려놓았다. 건물 내부 천장은 연등천장이며 양 측면 기둥 위와 대들보 사이에 충량을 걸쳤다. 지붕은 겹처마 팔작지붕이다. 누마루와 난간은 모두 새로 보수하여 원형을 잃었다.

전정에 있는 동재와 서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에 삼량구조의 홑처마 맞배지붕 기와집이다. 두 건물 모두 익공이 없는 무익공식이며 각 칸마다 2짝 띠살문을 달았다.

동무 4위는 조광조(趙光祖), 서무 4위는 이언적(李彦迪), 동무 5위는 이황(李滉), 서무 5위는 김인후(金麟厚), 동무 6위는 이이(李珥), 서무 6위는 성혼(成渾), 동무 7위는 김장생(金長生), 서무 7위는 조헌(趙憲), 동무 8위는 김집(金集), 서무 8위는 송시열(宋時烈), 동무 9위는 송준길(宋俊吉), 서무 9위는 박세채(朴世采)이다. 중국의 10철은 동종향(東從享) 1위 비공 민손(費公 閔損), 2위 설공 염웅(薛公 冉雍), 3위 여공 단목사(黎公 端木賜), 위공 증유(衛公 仲由), 위공 복상(魏公 卜商), 서종향(西從享) 1위 운공 염경(鄭公 冉耕), 2위 제공 재여(齊公 宰予), 3위 서공 염구(徐公 冉求), 4위 오공 언언(吳公 言偃), 5위 진공 진손사(陳公 顓孫師)이며, 송조 6현은 동종향 6위 주돈이(周惇頤), 7위 정이(程頤), 8위 장재(張載), 서종향 6위 정호(程顥), 7위 백옹(伯雍), 8위 주희(朱熹)이다.



동래향교 동재



동래향교 서재

전정 중앙의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좌우 퇴칸에는 각각 한 칸씩을 물려 2칸짜리 방을 들였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대청마루를 짰는데, 마루와 벽체는 개조한 흔적 있다. 막돌바른층쌓기한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웠



동래향교 명륜당

다. 중앙 어칸에 ‘명륜당(明倫堂)’ 현판을 걸었으며, 기둥 위의 공포는 출목이 있는 익공식 구조로 초익공은 상부에 연꽃을 초새김한 양서형의 쇠서이며, 이익공은 수서형 쇠서로 만들어 봉황머리를 초각한 보머리를 받치고 있다. 두공과 두공 사이에는 창방 위에 연꽃문양을 초각하여 소로를 한 개씩 올려 놓았다. 건물 내부에는 보아지를 새겨 대들보를 받치고 있으며 대들보 위에는 판대공을 세워 종보를 엮어서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박공면에는 방풍판을 달았다.

반화루의 오른쪽에는 대성전으로 통하는 외삼문이 있는데, 이 문은 정면 3칸, 측면 1칸의 건물로 출목이 있는 익공식 구조에 겹처마 맞배지붕이다. 외삼문 안쪽의 내삼문은 무익공 맞배지붕 건물이며 좌우에는 협문이 있다.



동래향교 내삼문

집이다. 두 건물 모두 공포는 초익공이 있는 익공식 구조이며 각 칸마다 2짝의 판장문을 달았다.

대성전은 막돌바른층쌓기한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기둥을 세웠다. 건물의 평면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규모에 중앙 어칸에는 ‘대성전(大聖殿)’ 현판을 걸었다. 명륜당과 마찬가지로 기둥 위의 공포는 출목이 있는 익공식 구조인데 건물의 전면은 중앙 어칸과 좌우 협칸에 각각 2짝의 판장문을 달았고, 양퇴칸에는 각각 2짝의 골판문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벽체로 처리하였다. 지붕은 겹처마 맞배지붕이며 박공면은 방풍판으로 마감하였다. 내부구조는 내진고주를 세운 1고주 5량집이며 천장은 연등천장이다.

동래향교의 건물 배치는 명륜당과 대성전이 2개의 축선상에 횡으로 배치된 좌학우묘형(左學右廟形)이다. 이에 따라 명륜당과 대성전은 각각 독립된 출구를 가지고 있는데, 명륜당으로 향하는 반화루와 대성전으로 향하는 외삼문이 약간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서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향교의 강학공간과 문묘의 존현공간이 병렬배치를 이루고 있으나, 존현공간이 강학공간보다 훨씬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비록 평지에 조성되었지만 존현공간의 위계성을 돋보이게 하고자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삼문 안의 후정(後庭) 좌우에 동무와 서무가 있는데, 두 건물은 모두 정면 3칸, 측면 1칸의 규모에 삼량구조의 겹처마 맞배지붕 기와



동래향교 대성전

2) 기장향교(機張鄉校)

기장 향교는 1996년 5월 25일 부산시 기념물 제39호로 지정된 건물로 기장읍 교리 62번지에 있다. 1440년(세종 22)에 창건되었는데, 향지(鄉誌), 향전(鄉傳), 상량문(上樑文) 등을 종합하면 처음 성내(城內)에 있던 것을 1617년(광해군 9)에 기장현의 유림들이 현의 북쪽 3리 되는 곳으로 이전복원하였고, 그 뒤 1758년(영조 34)에 다시 현의 동쪽 5리 되는 곳인 현재의 위치로 옮겼던 것 같다. 1855년에 기록된 『성묘중수기(聖廟重修記)』에 의하면, 지금 남아 있는 경내의 대부분의 건물이 이 때 6개월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³⁾



기장향교 세심문

지금의 향교 배치 유형은 직선축에 전학후묘를 배치하는 전형적인 형태이며, 경사지에 설치되어 각 건물의 위계성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남향하여 배치된 향교의 입구에는 홍살문대가 세워져 있다. 높직한 석축을 쌓고 그 위에 3칸의 솟을대문 형태의 외삼문인 세심문(洗心門)이 있고, 이 문을 지나면 '풍화루(風化樓)'라는 편액의 누각이 있다. 보통의 경우 누각이 대문의 기능을 겸하는 것과는 달리 기장향교에서는 외삼문 뒤로 이 풍화루가 자리잡고 있다.

풍화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기와집이다. 가구 방식은 출목이 있는 익공식으로 내부는 보아지로 처리하였다. 행공 첨차와 두공 모두 초각한 꽃봉오리 모양이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23) 부산대학교박물관·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기장군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1998, p.165



기장향교 풍화루

화반을 설치하고 그 위에 소로를 놓아 통장혀를 받치고 있다. 귀공포와 측면 공포가 있다. 내부의 천장은 연등천장이며 대들보 위에는 층랑을 걸쳤고, 대공은 파련대공과 첨차형으로 처리하여 종도리를 받쳤다. 풍화루 아래로 통로가 있고 계단을 올라가면 중정(中庭)이 나온다.



기장향교 동재



기장향교 서재

명륜당을 중앙에 두고 그 아래 동쪽과 서쪽에는 각각 동재와 서재가 있다. 동재와 서재는 민도리식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과 마루 1칸의 평면을 갖추고 있다. 동재의 지붕형태는 북쪽면이 맞배형이며 남쪽면은 팔작지붕의 형태이다. 서재는 팔작지붕이며 특히 건물 남쪽에 아궁이를 마련하였고, 굴뚝은 건물의 뒷편에 세웠다.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평면을 가진 겹처마 맞배지붕의 건물이다. 정면 좌우 2칸은 정면과 측면 각 1칸씩의 교리실(敎吏室)을 마련하고 나머지 3칸은 대청마루로 구성하였다.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한 초석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공포를 짰는데 출목이 있는 익공식이다. 행공첨차는 쌍S자형이며 두공은 교두형이다. 익공외부는 양서초식형이며 상부에는 봉황을 새겼고, 내부는 보아지로



기장향교명륜당공포

대들보를 받치고 있다. 행공첨차와 두공 사이에는 순각판이 있고 전면 기둥 사이에는 화반으로 처리하였다. 종보 위에는 판대공에 첨차를 끼워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천장은 연등천장이며 전면에는 벽체가 없고 후면 중앙에 2분합문이 있다. 측면에는 방풍판을 설치하였다.

명륜당 뒤에는 석축을 쌓았는데 계단을 올라가면 내삼문인 신삼문을 지나게 된다. 신삼문은 맞배지붕의 소박한 형식의 문이다. 그 안쪽에 대성전이 있는데, 일반적인 향교와는 달리 동무와 서무는 없다.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평면형태에 겹처마 맞배지붕의 구조를 가진 건물이다. 막돌허튼층쌓기 기단 위에 세워져 있다. 기둥은



기장향교 대성전

자연석 초석 위에 다시 긴 석재를 세우고 그 위에 나무기둥을 세워 장초석의 느낌을 준다. 이 건물의 공포도 명륜당과 마찬가지로 출목이 있는 익공식이다. 익공은 주두 아래에서부터 기둥머리와 주두를 감싸 행공첨차와 장혀, 외목도리를 받치고 있다. 양서초석형이며 상부에는 봉황을 새겼다. 행공첨차는 쌍S자형이며 두공은 교두형이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사다리꼴의 판재를 끼웠고 그 위에 소로를 얹어 주심도리 아래 장혀를 받쳤다. 양 측면의 벽체는 심벽에 다시 방화벽을 잡석으로 겹쳐 쌓았으며, 지붕의 측면에는 방풍판을 설치하여 비바람을 피하도록 배려했다. 후면에는 가운데 기둥에만 주두와 공포가 생략되고 다른 기둥에서 사용된 초석 위의 긴 석재 없이 나무기둥만 세웠다. 전면 각 칸마다 문이 있는데 어칸은 2분합문이



기장향교대성전공포

고 협칸은 1개의 문을 설치하였고 그 위에는 각각 살창을 달았다. 내부에는 중앙에 공자를 비롯한 5성과 양 측면으로 송조 6현, 우리나라 18현 등 24개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IV. 부산지역 목조건축의 특징과 의의

조선 초기의 송유억불정책으로 경제적 힘을 잃었던 사찰들은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민간신앙을 습합하면서 양반들의 경제적 지원 아래 대규모 불사가 이루어졌다. 왕조실록 등에는 사찰 중창에 대한 기록이 줄어들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불사가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시기의 건축물들이 대부분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지만 당시의 대찰로는 김제의 금산사, 보은 법주사, 팔공산 동화사, 구례 화엄사, 순천 송광사, 선암사, 공주 마곡사 등과 부산의 범어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찰들은 임난 이후에 다시 대규모의 중창 불사가 행해졌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주불전 가운데 특히 17·8세기에 중창된 건물들이 많은 것이다.

이 시기 주불전의 대부분은 다포식 건물이었다. 따라서 건물의 특징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건물의 공포 형식이라 할 수 있다. 공포의 보방향으로 놓이는 부재를 제공이라고 하는데, 공포 형태에 있어서 시대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제공이 어떻게 짜이는가 하는 점이다.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제공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 저울대 방식에서 중첩판 방식으로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저울대 방식이 상부의 하중을 소로를 통해 하부의 첨차로 전하는 구조임에 비해, 중첩판 방식은 상부의 하중을 소로 뿐만 아니라 판재의 상단면에 고루 분산시켜 하부로 전달하므로 구조적으로 유리한 형태이다. 또한 의장적인 측면에서도 중첩된 판구조의 제공은 상하부재를 일체화시켜 연속된 장식 문양을 부가함으로써 장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한편 제공의 외부는 교두형과 쇠서형으로 나누어진다. 쇠서형은 다시 초엽, 연화 등이 덧붙여진 형태가 나타난다. 제공 외단이 쇠서로 된 경우는 교두형보다 늦게 나타나는 형식이다. 쇠서의 형식도 초기 형태는 아래로 뾰은 강직한 형태를 갖지만 점차 부리가 위로 향하면서 의장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또한 쇠서부리를 당초의 줄기로 생각하여 당초문양으로 장식하기도 한다. 쇠서 상하에 초각을 덧붙이기도 하는데, 시대가 내려오면서 연봉오리를 초각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쇠서부리의 상부에 연화가 조각되어 덧붙은 형태도 있고 쇠서부리가 나가는 부분에 초각과 함께 연봉이 들어간 형태도 있다. 또한 꽃봉오리로 초각한 것, 반개한 모습으로 초각한 것, 만개한 모습으로 초각한 것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면서 장엄 효과를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특히 연화가 사용된 경우에는 용머리, 봉황머리 등 조각적인 요소가 조합되는 경우가 많다. 연화가 사용된 공포는 의장 효과가 컸으므로 조선 말기까지 사찰건축의 주류를 점하면서 활발하게 제작되었다.²⁴⁾

범어사 대웅전과 같은 다포계 맞배지붕을 가진 영남지역 주불전의 공포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4) 양윤식, 『다포의 형태 변화에 관한 연구-조선중기 불교건축의 연화형 공포를 중심으로-』 『문화재』 3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구조 건물	출목수	제 공 짜임	정면공포 쇠서유무	쇠서형식	내부살미	정면 주간포수	측면 공포	후면공포
범어사 대웅전	외3/ 내	중첩판	유	양서형	교두형	어칸3/협칸2	무	정면과 동일
기림사 대적광전	외3/ 내	"	유	양서형 (연화초각)	"	어칸·협칸2/ 퇴칸	"	정면과 동일
대비사 대웅전	외2/ 내	"	무	.	"	어칸2/협칸2	"	주간포수 어칸/ 협칸
대적사 극락전	외2/ 내	"	유	양서형 (연화초각)	"	어칸1/협칸1	"	살미 쇠서없이 교두형
성주사 대웅전	외3/ 내	"	유	양서형 (연화초각)	"	어칸2/협칸2	"	출목수 외2/내3 살미 쇠서없이 교두형
성흥사 대웅전	외3/ 내	"	유	양서형 (연화초각)	"	어칸1/협칸1	"	정면과 동일
신흥사 대광전	외3/ 내	"	유	양서형	"	어칸2/협칸1	"	정면과 동일
용화사 보광전	외2/ 내	"	유	양서형 (연화초각)	"	어칸2/협칸1	"	귀공포·주간포 무
운흥사 대웅전	외2/ 내	"	유	양서형	"	어칸2/협칸 퇴칸 1	"	주간포 대신 화반 배치
은혜사 대웅전	외3/ 내	"	유	양서형 (연화초각)	"	어칸1/협칸1	"	정면과 동일

범어사 대웅전의 공포는 제공의 짜임은 중첩판 방식이고, 제공의 형식이 쇠서형이면서 1~3제공의 쇠서가 비교적 강직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쇠서부리 상부에는 아무런 초각이 없다. 이러한 점은 제공에 쇠서가 없는 무하양식 공포와 대비되는 것으로 조선 전기 건물로 분류되고 있는 봉정사 대웅전, 조선 중기 건물인 관룡사 대웅전 공포와 비교된다. 봉정사 대웅전에서는 초제공 내외가 모두 교두형이고 2제공 외부살미 끝은 쇠서로 되었는데 3제공 살미는 내·외 모두 삼분두로 처리되었다. 반면 관룡사 대웅전에서는 1·2제공의 외부살미는 양서로 되었고 내부는 교두형이며 3제공은 내·외가 모두 교두형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러나 범어사 대웅전에서는 1~3제공의 외부는 양서형이고 내부는 모두 교두형으로 처리되고 4제공은 내부만 교두형으로 외부는 초제공보다는 좀 심한 양서형이며 5제공에서는 내·외를 초각시키고 있음을 볼 때 살미의 치목 수법은 하대로 내

려오면서 장식화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범어사 대웅전은 조선 후기 건물이지만 쇄서의 형태로 보아 비교적 이른 시기의 공포 형식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다포계 건물에서 후면 공포의 형태를 전면에 비해 의장을 생략한 간략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은 공포가 놓이는 위치에 따라 시각적 구성의 위계를 두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향은 조선 중기 이후에 점차 확산되어 조선 후기 다포계 건축물의 일반적인 특성이 되었다. 영남지역의 다포계 맞배건물들 가운데는 대비사 대웅전, 대적사 극락전, 성주사 대웅전, 용화사 보광전, 운흥사 대웅전 등이 모두 후면에는 주간포가 없거나 공포의 출목수가 줄어들거나 또는 주간에 화반만 짜올린 경우이다. 이에 비해 범어사 대웅전은 정면과 후면에 모두 동일한 공포가 배열되어 있다. 공포의 배치에 있어서도 조선 중기 건물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범어사 대웅전에는 다포계 맞배집의 가구수법을 잘 반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즉 다포계 맞배집의 가구법 가운데 특징적인 것의 하나가 측벽과 내부가구간의 수평연결 부위에 2중장혀를 사용함으로써 상부의 하중과 횡력을 분담하는 것이다. 2중장혀는 중도리 또는 중도리 장혀의 하부에 이를 보강하기 위한 또 하나의 뜬장혀를 두는 경우이다. 범어사 대웅전에도 양측벽의 내목도리와 중도리 하부에 2중장혀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범어사 대웅전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전면 귀기둥의 장초석 배치를 들 수 있다. 영남지역 다포계 맞배집 주불전 가운데 성주사 대웅전의 후면 좌측 귀기둥에 장초석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일하다. 범어사 일주문이 일반적인 일주문과 달리 네 개의 장초석을 세우고 그 위에 짧은 기둥을 세운 것과 같은 의도로 생각된다. 또한 범어사 대웅전 기단 양측 계단의 소맷돌 조각수법은 통도사 금강계단의 계단 소맷돌과 유사한 형식을 보인다.

범어사 일주문은 장초석을 사용함으로써 화려한 짜임의 공포로 받친 지붕부가 아래의 축부보다 위압적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현상을 석재라는 재료의 대비로 보상해주는 탁월한 안목을 보이는 건물이다. 일반적인 일주문들이 좌우 2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창방과 평방을 걸어 포작을 기둥 위에 종도리 방향으로 일렬로 놓는 데 비해, 범어사 일주문은 기둥 위에 보 방향으로 창방과 평방을 마치 마루의 귀틀을 짜듯이 교차시키고 기둥의 전후로 이중 포작을 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창방과 평방의 처짐을 보강하기 위해 제자각이라는 부재를 기둥과 창방에 결구하였다.

그 외 범어사의 건물들은 조선 후기의 출목이 있는 익공식 건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익공양식은 일반적으로 궁궐 건축에서는 행랑이나 침전 등의 건물에, 사찰에서도 2차 또는 3차적인 법당, 암자 등에 많이 사용되며, 사당이나 향교, 서원 등의 주요 건물에서도 볼 수 있다.²⁵⁾ 범어사의 부속전각들은 보계루를 제외하고는 대웅전이 맞배지붕이기 때문인지 모든 건물이 맞배지붕을 올렸다. 이 가운데 팔상·독성·나한전은 한 건물에 세 전각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건물이다. 세 전각을 따로 세울 공간이 부족해서였다기 보다는 이 전각이 세워질 당시 사찰 재정을 고려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기장의 장안사 건물들도 조선 후기에 유행하던 건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웅전은 조선 후기에 지어진 다포계 팔작지붕집으로 건물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인지 정면과 후면에는 각 칸 사이에 1구씩의 공간포를 설치하였는데, 양측면에는 공간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다포계 팔작지붕집은 각 칸마다 주간포작이 배치되는데, 조선 후기에는 양측면이나 후면 공포는 시각적으로 정면에 비해 위계가 낮으므로 간략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25) 김정기, 『한국목조건축』, 일지사, 1980, p.118

그러므로 장안사 대웅전도 이러한 조선후기 다포계 팔작지붕의 일반적인 경향에 따라 공포 구성에 위계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응진전과 명부전은 익공의 형태가 조금씩 차이날 뿐 범어사의 부속전각들처럼 출목이 있는 익공식 건물로 조선 후기 부산지역 목조건물의 특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산지역 관아건물의 특징을 확인하기에 앞서 일반적인 관아건물의 구성과 배치를 살펴 보면, 관아는 객사와 더불어 읍성의 북쪽에 위치하여 전체 공간체계의 중심으로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동헌과 객사가 인접하여 나란히 남향하는 형식이 일반적이다.²⁶⁾ 동헌은 관아의 중앙 또는 북쪽 주요 위치에 놓이고, 동헌과 내아는 항상 곁에 붙어 있어 유기적 기능을 갖는다. 동헌 부근에 있는 객사는 대체로 동헌의 동쪽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관아에는 동헌과 내아 외에 좌수·별감의 집무하던 향청(鄉廳), 육방의 우두머리가 집무하던 작청(作廳), 회계사무를 관장하던 공수청(公須廳), 군장성의 장관청(將官廳), 죄를 다스리는 형방청(刑房廳), 노복을 다루는 관노청(官奴廳), 죄인을 가두는 형옥(刑獄) 등 이에 사령청(使令廳), 훈련청(訓練廳), 창고, 군기고, 사우(祠宇) 등의 건물들이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있다.²⁷⁾

동헌의 평면을 살펴보면 장방형 평면에 대청과 온돌방으로 구획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강릉 칠사당(七事堂)과 홍주 동헌처럼 누마루를 별도로 달아 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보은 동헌, 충주 청녕헌(淸寧軒), 태인 동헌과 같이 대청에 있어 부분적으로 단을 높여 평면상에 위계성을 준 경우도 있다.²⁸⁾ 동헌의 건축양식은 익공식이 주류를 이루나 후기로 오면서 민도리집 계통도 같이 사용됨을 알 수 있고,

26) 대한건축학회, 앞의 책, 기문당, 1996, p.480

27) 장경호, 앞의 책, 문예출판사, 1992, p.356

28) 장경호, 위의 책, 문예출판사, 1992, p.382

지붕은 모두 팔작지붕이고 처마는 겹처마가 주를 이루나 홑처마도 있다. 가구는 거의 2고주 7량 혹은 1고주 7량 등 7량집이 대부분이다.

동헌이 수령의 정무 수행의 공적인 공간이라면 내아는 사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내아는 일반적으로 관아 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살림채이기 때문에 상류주택의 안채와 같은 평면을 이룬다.²⁹⁾

고지도 및 관계 문헌과 유구 등을 통해서 볼 때, 관아의 맨 앞에는 홍살문이 있고 다음에 외삼문이 있으며, 그 뒤에 내삼문이 있어 동헌에 이르는 진입과정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삼문은 처마가 겹처마이고 지붕은 팔작지붕이며 2층 문루형식이 일반적이다. 공포의 형식은 대부분이 익공양식이다. 내삼문은 솟을삼문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문도 일종의 내삼문으로 외삼문과 동헌 사이에 놓이며 중앙에 솟을대문을 설치하고 좌·우는 방과 창고 용도의 행랑채로 되어 있다.³⁰⁾

객사는 각 고을마다 성안의 가장 중요한 위치나, 또는 관아와 나란하게 건립되는데, 그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객사건축의 중앙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세운 주사(主舍)에 전패와 궐패를 모셔놓고 지방관아의 수령이 초하루, 보름마다, 또 나라에 국상과 같은 큰 일이 있을 때, 이 전패에 절하는 향궐망배(向闕望拜)의 의식을 행하던 곳, 둘째, 외국사신이나 중앙으로부터 왕의 명을 받들고 온 사신을 접대하던 건물이다.

일반적으로 객사는 주사와 동서 익헌으로 구성된 경우와 한 채의 건물로 주사와 동서 익헌의 기능을 전담하는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체로 익공식 공포를 결구하였다.

29) 주남철, 앞의 논문, 『건축』 28권 116호, 1984, p.30

30) 대한건축학회, 앞의 책, 기문당, 1996, p.483~484

부산지역 관아건물의 형식

건물 \ 구조	처마	지붕	공포	평면
충신당	겹처마	팔작지붕	초익공	정면 7칸, 측면 4칸 (동익랑) 정면 5칸, 측면 2칸
망미루	겹처마	팔작지붕	이익공	정면 3칸, 측면 2칸
독진대아문	홀처마	소슬지붕	무익공	정면 3칸, 측면 1칸
장관청	겹처마	팔작지붕	초익공	기영당 정면 3칸, 측면 2칸 회로당 정면 4칸, 측면 2칸 행랑 정면 7칸, 측면 1칸
군관청	겹처마	팔작지붕	초익공	정면 6칸, 측면 2칸
다대포객사	홀처마	팔작지붕	무익공	정면 5칸, 측면 2칸

현재 부산에 남아 있는 관아건물은 동래의 동래부동헌과 장관청, 군관청, 금강공원의 망미루, 독진대아문, 다대포 객사 등이다. 남아 있는 건물도 적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원래의 위치에 있지 않고 옮겨져 있는 건물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관아의 모습을 복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동래부동헌은 서익랑과 내아를 모두 잃었고, 군관청과 망미루, 독진대아문은 원위치를 잃었으며, 다대포 객사도 옮겨져 있다.

건축 양식면에서도 현존 건물들의 원래 모습을 고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충신당은 서쪽벽과 문설주, 중방 일부만 옛 부재이고 나머지는 모두 해체 수리하였다. 장관청도 건물의 외관을 변형시켜 옛 모습을 찾기 힘들며 다대포객사도 벽체와 바닥이 남아 있지 않다.

현재 상태에서 이들 건물의 형식을 정리한 <표 2>를 보면 부산지역 관아건물은 위계가 높은 건물로 대체로 겹처마집이며 팔작지붕을 엮었고, 간단한 구조의 익공식집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용도를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의 평면으로는 조선시대 당시 건물의 모습을 복원하기는 꽤 어렵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즉 다대포객사의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관아건물 가운데 객사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의 규모는 주사(主舍)라고 하기에 규모가 작은 것이다.

관아건물과 함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공적기관인 향교건물은 고고하고 검소한 선비의 기품과 바르고 곧은 윤리와 법도 등의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 대체적으로 단순 소박하고 남북축과 좌우대칭축이 균제되는 배치규범을 지키고 있다. 입지는 읍성을 중심으로 하여 읍성 외곽 동쪽과 서쪽에 소재한 것이 많으며 좋은 산세를 배경으로 하였고 동쪽에 위치한 경우에는 읍성 앞쪽에 있는 산이나 고개를 넘어 관아의 전면을 피하게 하였다. 거리는 관아에서 대개 1리 내지는 3리 정도 떨어져 있으며 자좌오향(子坐午向), 즉 남향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향교의 주된 건물은 제향의 기능을 가진 대성전과 강학을 하는 명륜당이다. 대성전의 부설로 동무(東廡)와 서무(西廡)가 있고 명륜당의 부설로 동재(東齋)와 서재(西齋)가 있다. 정문은 3칸이거나 누문(樓門)인데 누문인 경우 정문의 역할도 한다. 대성전과 명륜당 사이에는 담장을 치고 문을 세웠는데 이를 신문(神門) 또는 내삼문이라 한다.

건물배치 방법에 있어 남북 축선상에 대성전과 명륜당을 일직선으로 하는 것은 엄격히 지켜지고 있으나 대성전과 명륜당의 위치가 바뀌기도 한다. 이를 전묘후학(前廟後學)과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형식으로 대별하는데, 전묘후학은 정문을 들어서면 대성전과 동, 서무가 전정(前庭)에 있고, 명륜당이 후정(後庭)에 있는 배치형이다. 이러한 배치는 평지에 주로 보이는 형태로서 사당을 전면에 두어 신위

에 대한 존엄성을 우위에 둔 배치라 생각된다.

전학후묘의 배치는 명륜당과 동, 서재가 전정에 있고 대성전이 후정에 있는 형이다. 이는 평지보다는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지형의 특성과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건물의 입지 선정에서 배산임수의 지형을 택하는데 사당을 공간의 위계가 높은 뒤쪽에 배치하고자 한 것으로 향교 배치 중 가장 일반적이다.

한편 한 축선을 기준으로 두 건물이 단일 축선에 있지 않고 2개의 축선상에 놓일 때는 좌묘우학형 또는 우묘좌학형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배치는 대성전의 위계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대성전과 명륜당 외에 부속건물들은 어느 일정한 형식에 의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지형과 대지 상황에 따라 달리 배치된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기능을 도왔던 교직사(校直舍), 존경각(尊經閣), 증반실(蒸飯室) 등은 명륜당 주변에 있고 제사의 기능을 도왔던 제향실(祭享室), 전사청(典祀廳), 제기고(祭器庫) 등은 대성전 주변에 배치되어 있다.³¹⁾

우리나라 대표적 향교의 배치형식을 정리한 <표 3>을 보면³²⁾ 전반적으로 전학후묘형의 향교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의 기장향교도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성전 영역을 높은 위치인 후면에 배치하였다. 그런데 동래향교는 좌학우묘의 배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좌학우묘의 배치는 대성전의 위계가 높아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었다. 동래향교의 대성전은 명륜당과 병렬하여 배치하지 않고 한 단 물려 석축을 쌓고

31) 김원룡 감수, 『한국미술문화의 이해』, 예경출판사, p.428~429

32) 이정수, 『조선시대 향교·서원건축 구성형식의 비교 연구』 『한국건축사론』, 지문당, 1990, p.228 참조

단 높이의 차이를 두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입공간은 명륜당과 병렬되게 배치하였지만 내삼문은 뒤로 물려 배치함으로써 위계의 상하를 표현하고 있다.

배치형식	대표향교
전학후묘	과주향교, 김포향교, 시흥향교, 지평향교, 경기도 광주향교, 장수향교, 안성향교, 포천향교, 죽산향교, 고양향교, 이천향교, 남양향교, 수원향교, 양주향교, 청주향교, 통진향교, 강화향교, 온양향교, 양지향교, 진주향교, 영천향교, 함양향교, 교하향교, 교동향교, 양성향교, 진위향교, 장수향교, 평택향교, 대정향교, 여주향교, 순천향교, 광주향교, 양근향교, 강릉향교, 남원향교, 보성향교, 삼가향교, 초계향교, 기장향교
전묘후학	서울 성균관, 니주향교, 경주향교, 진주향교, 함평향교, 정읍향교
좌묘우학	영암향교, 진천향교, 광양향교, 밀양향교, 거창향교, 합천향교
좌학우묘	단양향교, 제주향교, 동래향교

동래향교와 기장향교 각 건물의 형식을 정리한 <표 4>에서 현존하는 부산의 향교건물은 위계가 높은 건물은 겹처마에 출목 있는 익공으로 공포를 구성하고 있으며 건물의 평면 규모도 큼직하게 세웠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향교건물은 동일향교내에서 대성전이 다포식, 출목이 있는 익공식, 2익공식일 경우에 명륜당은 출목이 있는 익공식, 이익공, 초익공 등의 형식을 지니고 동·서무, 동·서재는 익공식 또는 민도리식을 사용하는 데 비해, 동래향교와 기장향교는 대성전과 명륜당에 대하여 공포 형식으로 위계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성전, 명륜당에 비해 동·서무, 동·서재는 한 단계 낮은 공포를 채용하여 위계 차이를 두었다. 즉 교생들의 기숙사 시설인 동재와 서재는 실생활의 공간이므로 무익공이나 민도리식의 일반 민가건물과 형식이 같다. 기장향교의 동재는 남향한 지붕이 팔작지붕인데 반해 북쪽의 지붕은 맞배형식인 점이 이채롭다.

향교		구조		처마	지붕	공 포	평 면	비 고
동래향교	명륜당	겹처마	맞배지붕	출목 있는 익공	정면5칸, 측면3칸			
	동 재	홀처마	맞배지붕	무익공	정면3칸, 측면1칸			
	서 재	홀처마	맞배지붕	무익공	정면3칸, 측면1칸			
	대성전	겹처마	맞배지붕	출목 있는 익공	정면5칸, 측면3칸			
	동 무	겹처마	맞배지붕	초익공	정면3칸, 측면1칸			
	서 무	겹처마	맞배지붕	초익공	정면3칸, 측면1칸			
	반화루	겹처마	팔작지붕	초익공	정면3칸, 측면2칸			
기장향교	명륜당	겹처마	맞배지붕	출목 있는 익공	정면5칸, 측면2칸			
	동 재	홀처마	팔작지붕	민도리식	정면3칸, 측면2칸, 마루1칸	북쪽은 맞배지붕		
	서 재	홀처마	팔작지붕	민도리식	정면3칸, 측면2칸, 마루1칸			
	대성전	겹처마	맞배지붕	출목 있는 익공	정면3칸, 측면3칸			
	풍화루	겹처마	팔작지붕	출목 있는 익공	정면3칸, 측면2칸			

V.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시대 부산지역 목조건축물에 대하여 크게 사찰건축과 관아 및 향교건축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 보았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 부산지역 목조건축물은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있어 조선시대 건축양식 전반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존 자료는 영남 일대의 동시기 건축물에 비해 두드러지는 차별상을 발견하기도 힘들다. 그러므로 부산지역 목조건축물은 조선 후기 목조건축양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자료로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조선시대 부산지역 목조건축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사찰건축물 가운데는 범어사 대웅전이 동시기를 대표하는 건물로 주목된다. 다포계 맞배지붕집을 대표하는 이 건물은 조선 전기 건물들과는 달리 중첩판 방식을 잔제공에 강직한 형태의 쇠서를 달았다. 또한 시기가 더 하강하는 건물들에서 전면의 공포와 후면의 공포가 일치하지 않는 예가 많음에 비해 전면과 후면의 공포 형식이 동일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범어사 대웅전은 조선 후기 건물이면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중건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한편 양측벽의 내목도리와 중도리 하부에는 2중장혀를 사용하여 다포계 맞배지붕집에서 나타나는 가구수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전면 귀기둥의 장초석 배치라든가 대적사 극락전, 통도사 금강계단과 같이 기단부의 면석과 계단 소맷돌에 문양을 장식한 것 등에서 건축가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이는 건물이다.

범어사의 부속 건물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범어사 일주문이다. 다른 사찰의 일주문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장초석 배치가 이 건물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장안사의 대웅전은 조선 후기의 다포계 팔작지붕집의 형식을 잘 보여 주는데 특히 양측면에는 공포를 배치하지 않아 공포 구성에 위계를 두는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경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 밖의 범어사 부속 건물들과 장안사의 부속 건물들은 모두 사찰의 2차, 3차 법당에서 즐겨 사용되었던 익공식 공포양식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익공식 건물 가운데 가장 화려한 출목이 있는 익공식 건물로 쇠서에는 연꽃문양을 장식하거나 용머리, 봉황머리를 조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형식은 조선 후기 사찰건축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것으로 부산지역의 사찰건축물도 이 시기 건축물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부산지역의 관아건물은 일반 민가에 비해 위계가 높은 건물이므로 대체로 겹처마집이며 팔작지붕을 엮었으며, 간단한 구조의 익공식집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위치를 잃은 건물들이 많아서 전체적인 관아의 복원은 어려운 실정이다. 부산지역의 향교건물은 두 유형이 있는데, 동래향교는 일반적인 전학후묘형이 아니라 좌학후묘형의 배치를 취하고 있다. 좌학후묘형은 사당인 대성전의 위계가 두드러지지 않아 많이 사용되는 배치법은 아니었는데, 동래향교는 이러한 약점을 명륜당보다 단을 높이고 진입공간을 뒤로 물려서 대성전을 배치함으로써 극복하였다. 기장향교는 경사면을 이용하여 낮은 전면에 명륜당을 배치하고 후면에 대성전을 배치하는 일반적인 전학후묘형을 택하고 있다. 향교 각 건물들은 위계가 높은 대성전과 명륜당은 겹처마에 출목이 있는 익공으로 공포를 구성하고 있으며 평면 규모도 부속건물들에 비해 크다. 이에 비해 부속건물들은 홀처마에 초익공, 무익공, 민도리식 등 일반 민가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상에서 조선시대 부산지역 목조건축의 특징과 의의를 살펴 보았는데, 특히 사찰건축에 있어서는 전국 각 지역의 건축물과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조선시대 영남지역 건축의 특징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더 다양하고 폭넓게 이 시기의 다른 지역 자료와 비교 검토를 하지 못한 한계점은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